

한가지의 거짓명제

여러분은 법(法)이라는 단어를 듣거나 말할 때 어떤 선입견이 드십니까? 모르긴 해도 딱딱하거나 어렵거나 지루하고 골치 아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법학자로서 필자 또한 처음에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 보았습시다만, 이제는 이 분야가 먹고사는 밥줄이다 보니 그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각이 무뎌져 이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친숙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이 지면에서는 법의 실체와 본질을 그것도 신앙의 눈으로 한 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법이란 무엇인가?”

법의 정의(正義)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사람만큼이나 설(說)이 다종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한데 묶어 우리식대로 이야기하면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통상 그 목적은 복지(福祉)에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강제력(Enforcement)은 쉽게 이야기하기에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볼 것은, 복지란 요즘 세간에서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는 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 등과

같은 허접한 개념이 아니고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원초적인 틀’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법은 지금부터 약 4,200년 전 아브라함이 고향으로서 수메르(Sumer) 우르(Ur)의 왕이었던 우르남무(Ur-Nammu, 재위 B.C.2124-2107)가 공포한 것(소위 우르남무 법전)을 효시(嚆矢)로 두고 있습니다.

당시 우르남무의 법전에서는 왕을 목자(牧者)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처럼 왕이 백성들의 목자라고 칭했던 사고방식은 목축민적 착상에서 비롯된 결과로 이는 후대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법전(Code of Hammurabi)에 계수되고, 이후 약 2000년이 지나 신약성경에서도 이를(목자)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결국 목자라는 단어는 법의 최고집행자로서 뿐만 아니라 왕의 이상상(理想像)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마 02:06)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할 것은, 법이 복지(법의 목적)를 이룰 수 있는 수단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법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원초적인 틀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지 이를 지킴으로 해서 응당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법은 사람다운 생활을 보호하는 것에 본연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의 목적은 ‘복지의 실현을 위한 사람다운 생활의 보호’에 있으며 그 힘의 원천은 강제력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을 하면 100원당 곤장 1대씩에 처한다” 이것이 법입니다. 곧 도둑질을 하더라도 이에 따른 법의 제재가 없다면 이는 법의 형체만 뒤집어쓰고 있는 허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법과 구별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흔히 도덕(道德)이라 합니다.

‘하라’는 시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또한 법이 아닙니다. 이것이 법이 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법의 제재, 곧 강제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네 부모에게서 탄식이 한 번 들릴 때마다 곤장 100대씩에 처한다” 이것이 법입니다. 오래전 앞서 본 우르남무 법전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은 수단이 아니라 틀이고 강제력이 있어야 하는데서 존재의 이유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나의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의 머리를 깎고 노예의 표지를 붙여 은으로 팔아 넘겨야한다.”

“만약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나의 어머니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의 앞머리를 깎고 시중을 끌고 다닌 다음에 집에서 추방한다.”

“만약 아내가 남편을 싫어하여 그에게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에는 아내를 강물에 던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혹간 법에 대응하는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법의 반대말은 무법(無法)도 불법(不法)도 아닌 비법(非法)입니다.

이 경우 ‘무법’은 ‘법이 없는 것’이고, ‘불법’은 ‘법을 어긴 것’이 되며, ‘비법’은 그것이 ‘법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비법은 통상 불법과 같은 말로 의제(擬制,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를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되어 사용되기 일쑤이나 본질은 다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소크라테스(Socrates)가 이야기한 악법(惡法)은 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목적에 반하거나 왜곡되어 있는 또 다른 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복지를 이루기 위한 틀입니다. 곧 그 틀은 법과 비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고, 달리 비법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 법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비법 또한 아무런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없이 다만 무법에 수용될 것입니다. 결국 비법은 법의 존재를 그 조건에 두고 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법 또한 이와 다름이 없습니다. 법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비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비법이 없다면 법은 그 자체가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고 말 그대로 무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개념으로서 강제력이 없는 도덕은 사람 사는 세상 어디나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양심’(良心)이라고 하는 본성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양심은 도덕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나 양심 또한 처한 환경이나 시대적 변천에 따라 모습을 달리합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둥 지금은 그랬는데 옛날은 아니었다는 둥의 이야기를 예전의 도덕과 지금의 도덕, 지금의 법과 예전의 법에 비추어 보면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법도 아닌 도덕도 아닌 우리 생활의 규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일컬어 ‘관습’(慣習)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관습은 아직 법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져 내려와 사회구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관습이 사회구성원의 지지를 얻어 확신에 이르게 되면 급기야 법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것이 관습의 특성입니다. 우리식대로 이야기하면 관습은 겉모습만 법의 옷을 입고 있는 준법(準法)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법을 생각해 보면 법은 우리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일련의 구속(拘束)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대로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하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신체적 혹은 경제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경우에 따라 짜증이고 불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은 나 자신을 위하는 것 보다 서로서로를 위하는 것에 보다 큰 비중과 무게를 두고 있음을 엿보아 알 수 있습니다. 곧 법은 우리의 복지를 최선에, 나 자신의 복지를 차선에 두고 있는 것이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생각건대 법을 달리 질서(秩序)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 때문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이상과 같이 법에 대한 간략한 필자의 설명은 여기서 그치기로 하고 이제는 화제를 성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우리식대로 그것도 법문(法文)의 형식을 빌려 한마디로 정리(整理)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필자는 다음의 말씀을 기초하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키라(A) (그리하면) 이루리라(B)”[전자(P), 구약성경],
“믿으라(A') (그리하면) 얻으리라(B’)”[후자(Q), 신약성경].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신 26:17-18)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 03:16-17)

이 같은 정리는 적어도 크리스천의 명패를 두른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말씀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수학적(數學的)으로 풀어 그 뜻을 명료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수학적으로 명제(命題, Proposition, 위에서 P 또는 Q)는 참(True)과
거짓(False)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제(P)가 참이면 그 부정명제($\neg P$)는 거짓이고, P가 거짓이면 그 부정
 $\neg P$ 는 참으로 성립합니다. 이 경우 $\neg P$ 의 부정은 P가 됩니다. 이를 공식화하
면 다음과 같습니다.

$$P = \neg(\neg P)$$

이 공식에 위의 명제 P[지키라 (그리하면) 이루어라]와 Q[믿으라 (그리하면) 얻으리라]를 각각 대입해 보겠습니다.

지키면 이를 수 있다(P), 지키면 이를 수 없다($\neg P$)

지키면 이를 수 있다(P) = 지키면 이를 수 없다($\neg P$)는 것은 아니다($\neg(\neg P)$)

믿으면 얻을 수 있다(P), 믿으면 얻을 수 없다($\neg P$)

믿으면 얻을 수 있다(P) = 믿으면 얻을 수 없다($\neg P$)는 것은 아니다($\neg(\neg P)$)

모두가 옳은게 성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문장을 ‘이면 ’이라는 단서를 붙여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명제로 합쳐둘 수 있습니다. 곧 “P(Q)이면 Q(P)이다”[$P(Q) \rightarrow Q(P)$]의 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공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P(Q) \rightarrow Q(P)$ 가 참(True)일 때에는 $P \Rightarrow Q$

$P(Q) \rightarrow Q(P)$ 가 거짓(False)일 때에는 $P \nRightarrow Q$

마찬가지로 위 공식에 친구약 명제를 각각 대입해 보겠습니다.

지켜 이를 수 있으면, 믿어서 얻을 수 있다 ($P \rightarrow Q$) ... ①

믿어서 얻을 수 있으면, 지켜 이를 수 있다 ($Q \rightarrow P$) ... ②

이제 상황은 점점 꼬여만 갑니다. 위 명제에서 A(지키라)를 A'(믿으라)로 B(이루리라)를 B'(얻으리라)로 각각 바꾸어 또 다른 명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키면 얻을 수 있다 (P) ... ③

믿으면 이를 수 있다 (Q) ... ④

위의 ③과 ④ 두 명제를 마찬가지로 $P(Q) \rightarrow Q(P)$ 의 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켜 얻을 수 있으면, 믿어서 이를 수 있다 $(P \rightarrow Q)$... ⑤

믿어서 이를 수 있으면, 지켜 얻을 수 있다 $(Q \rightarrow P)$... ⑥

이상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법을 단순화하여 이를 끝이끝대로 수학공식에 대입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상의 각 명제에 대한 참(True)과 거짓(False)을 분별해 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이 경우 ‘지키라’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율법)’일 것이고 ‘이루리라’라는 것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성민)’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보혈의 공로’를 의미하고, ‘얻으리라’는 것은 응당 ‘영생’이 될 것입니다.

먼저 ①의 명제는 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성민이 된 사람이라면 보혈의 공로를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라는 명제는 참일까요? 이 땅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성민이 되지 않을 수 있겠으며, 그러기에 그런 사람이 어찌 저 천국을 소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명제는 재론의 여지없이 참(True)으로 성립합니다.

②의 명제로서 그렇다면 “보혈의 공로를 믿어서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이루는 사람이다”라는 명제는 참일까요? 이는 달리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천국을 이미 소유한 것과 진배없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끊어버리고 이에 등지고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때로는 떠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에서 결단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 주고 사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제 또한 다름없이 참(True)으로 성립합니다.

③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영생을 얻은 자이다”라는 명제는 참일까요? 말을 바꿔 지금도 율법의 율법을 올곧게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 영생을 소유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명제는 필자가 보기엔 거짓(False)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1%이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있다면 이는 다름없이 거짓(False)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은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비법입니다. 다음의 말씀이 이를 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롬 03:20, 27-28)

④의 경우는 어떨까요? “보혈의 공로를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명제는 참일까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를 속량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한 보혈의 공로를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을까요? 이는 말이라고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명제는 어디에 둘도 없는 참(True)입니다. 그것도 참(True)을 넘어 영원히 변치 않을 진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⑤와 ⑥의 경우는 우리가 그 어떠한 명제보다도 앞세워 두어야 할 우리의 신앙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곧게 지키는 중에 그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고자 안타깝게 애쓰는 자가 그것도 가슴에 보혈의 공로를 하시라도 잊지 않고 있다면 그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어서 이를 수 있다고 함은 이미 얻은 것(영생)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 된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아 이상의 모든 명제 중에 가장 뛰어난 참(True)의 명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상의 명제들 중에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법은 ‘믿으라’일 것입니다. 곧 ‘지키라’, ‘이루리라’, ‘얻으리라’는 모든 것의 주인은 다름 아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심의 여지없이 믿는 사람은 지키게 되고, 이루게 되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자가 눈여겨보고자 하는 것은 거짓명제로서 ③의 경우입니다. 보다 정확히는 때로는 거짓이 될 수 있는 ③의 명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

다. ③의 명제는 우리 삶을 무척 짜증나게도 피곤하게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기복 신앙(祈福信仰)과 연루되게 될 요량이면 나머지 모든 명제의 지위와 위상을 때로는 곤혹스럽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는 시각에서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인(빈으라)을 대신하여 종 된 이것이(지키라, 이루리라, 얻으리라) 마치 주인인 것처럼, 주인을 잠시 숨겨두고, 주인의 눈을 피해, 주인이 잠든 사이, 주인 모르게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고는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십일조를 바치면 30, 60, 100배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3천명을 목표로 전도에 힘쓸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확장을 위해 물질적으로나 기도의 후원을 통해서나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는 후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대한 축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양 무리의 목자(牧者)로서 주의 종 목회자를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할 것입니다. 보다 큰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후원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불치의 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이 완전히 치유해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믿고 바쳤더니 더한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저와 같이 더한 것으로 그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 또한 결단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언행과 행사가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필자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보다 한 차원 수준높은 언행과 행사에 대한 요구입니

다. 우리가 이미 천국의 상속자로서 영광된 지위와 위상을 점하고 있다면, 천국시민에 걸맞은 품위와 인격으로서 이 같은 언행과 행사에 품격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가 이를 천국의 모습과 그곳의 상황을 우리에게 낱알이 알려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슬픔도, 눈물도, 재물도, 부귀영화도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곳으로서, 그것도 화려한 청옥색(靑玉色)으로 물들여진 저 찬란한 천국의 면면을 우리에게 일일이 보여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도 저도 아니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나마 잠시잠깐이라도 보여주셨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 세상에서의 온갖 잡다한 것은 허상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이 땅을 떠나 그곳 천국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속한 재물에, 명예에, 지위에 관심을 두고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그저 개탄스럽기 그지없을 따름입니다. 언감생심 우리를 자녀삼아 그것도 천국의 상속자로서 인(印) 쳐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기에 잠깐 왔다가 가는 세상에 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그도 죽게 하시면 더더욱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천국의 유업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떡을 보입니다. 부귀영화를 보입니다. 자식과 남편의 영달을 보입니다. 이 땅위에서의 기복을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같은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유혹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으셨는지 아십니까? 그러기에 언제

고 어디서나 단호히 뿌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를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기로 그것은 다름아닌 간절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신 08:03)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마 04:01-10)

그렇다면 우리 앞에 혹여 떡을 보이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 앞에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지식과 재물과 그 형편을 담보로 그보다

더한 또 다른 복을 미끼로 삼고 있다면 그것은 패악입니다. 자랑스러운 천국시민으로서 품위와 인격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 있는 것도 아님은 물론입니다.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랑스러운 천국시민으로서 품위와 인격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기품있게 그리고 의연하게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며 쫓개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며 나누고, 천국의 시민권을 손에 쥔 품격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도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배를 좀 굶었다손 치더라도 체통을 잃지 말고, 곡간이 넉넉하다고 해서 너스레 떨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움츠리지 말고, 부자라고 해서 기 썩지 말고, 가슴 흉패(胸牌)에 떡하닌 붙여둔 천국 비자(VISA)를 보고 또 보는 중에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좀 넉넉하게 품격 있는 천국의 선비들과 정실부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